**자유논제1**

**Q. 요조가 말한 ‘세상이란 개인이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그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나요? 그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조가 세상이란 개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후에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이 개인이다라는 생각이 어느정도는 맞고 어느정도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각각 관점이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이 세상에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기도 하고 혁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몰입하여 나를 그 사람과 잘 맞게끔 바꾸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점들에서 세상은 개인이다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개인이 모여 다수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바뀌기도 하고 그들의 의견이 합쳐져 어떤 집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개인이라는 말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조의 주위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더 ‘세상이란 개인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호사키 밖에 없으니 그의 생각이 요조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만약 요조에게 친구가 많았더라면 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논제2**

**Q. 인간은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로지 욕구 충족과 쾌락이 원인일걸까요?**

인간이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는 이유에는 욕구 충족과 쾌락도 있겠지만 그것들에 의존하게 되고 채울 수 없는 정신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인 것 같다.

또, 맨정신에는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신이 술과 담배 등으로 망가지는 모습이 싫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선택논제1**

**Q. 인간실격의 저자 ‘다자이 오사무’는 거의 반 평생을 경제적으로 생가에 의지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경제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독립이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자이 오사무에게 가족은 절대적이고 삶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소설에서도 주인공 요조가 가족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신적 독립을 위해서라면 물질적 독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신적 독립을 위해서는 경제적독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으면 보호자는 자신의 돈은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섭을 해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보호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또한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어떤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이가 먼저 생각날 것이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독립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정신적 독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택논제2**

**Q. 친한 지인을 험담하는 것을 봤을 때 나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른 척하는 게 옳을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지만 소설속의 내용에서의 상황이라면 말하지 않고 모른 척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요조가 아버지에게 그런 상황을 말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득이 되는 것은 없다.

이미 연설은 끝났고 아버지가 자신을 칭찬한 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저 아버지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칭찬해준 것이다.

그래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페스트 논제**

**자유논제 1**

**랑베르는 타루가 리외의 부인이 요양소에 있다는 것을 말하자 전에는 거절했던 보건위생대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랑베르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타루는 그를 따라갔으나 문을 나서는 순간 생각이 바뀐 듯, 신문기자 쪽으로 몸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리외의 부인이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요양소에 있다는 걸 아나요?”***

***랑베르는 놀란 몸짓을 했지만 타루는 이미 떠났다.***

***이튿날 꼭두새벽에 랑베르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시를 떠날 방도를 찾을 때까지 함께 일하는 걸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선택논제1**

**페스트는 빠르게 전염 되고 있고 도시는 폐쇄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외부에서 온 랑베르는 다른 지역에까지 페스트를 옮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오랑시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랑베르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내가 문제의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해도 그건 다인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시에는 당신과 같은 경우가 수천 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밖으로 나가게 두지 않으니까요.”**

**.**

**.**

**.**

**“그래도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

**.**

**“다짐컨대 이건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쩌면 서로 마음이 맞는 두 사람에게 이런 이별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

**.**

**“그렇다면 제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풀어 나가야 한다는 건가요?” 그래도 저는 이 도시를 떠날 겁니다.” 그는 도전적인 어투로 말을 이었다.**